

마. 정시-일반전형, 교과우수전형, 농어촌전형, 사회배려전형(의과대학 적·인성) 분석 결과

[고려대학교 문항정보]

1. 일반 정보

문항붙임번호	11	
유형	☐ 논술고사 ☒ 면접 및 구술고사 ☐ 선다형고사	
전형명	정시모집 일반전형, 교과우수전형, 농어촌전형, 사회배려전형(의과대학 인·적성면접)	
해당 대학의 계열(과목) / 문항번호	의과대학 / 1~3번	
출제 범위	교육과정 과목명	생활과 윤리, 독서
	핵심개념 및 용어	아동 학대
예상 소요 시간	면접시간 5분	

2. 문항 및 제시문

30분 넘게 경련하는 5세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 왔다. 약이 들어가니 경련은 잠시 멈추는 듯했으나, 몇 분 후 아이의 몸은 다시 뻣뻣해지고 바들바들 떨렸다. 진찰을 위해 옷을 걷으니 아이의 마른 팔다리에는 멍든 자국들이 보인다. 보호자를 찾으시니, 대기실 한구석에서 등이 굽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오신다.

“아이 경련이 겨우 멈췄는데 경련을 너무 오래 했어요. 아이는 다시 입원해서 약을 새로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.” 안내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. “더 이상 입원은 못 해요.”

잠시 아이 옆에 계셔달라고 한 후, 진료실로 돌아와 아이의 의무기록을 보고 있는 10여 분 사이 응급벨이 응급실 전체에 울렸다. 다급히 뛰어가 보니 아이의 할머니가 응급실에 진료를 보러 온 교수님의 멍살을 잡고 있었다. 여러 명의 성인이 달려들어 겨우 할머니를 떼어내자, 할머니는 약을 쓰면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다. “저놈 때문이야. 저놈 때문에, 애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.”

아이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집의 셋째로 태어났다. 계획된 아이는 아니었다. 아이는 생후 일주일 경부터 경련을 했다.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, 뇌손상이 확인되었다. 퇴원 후 1년이 지난 한겨울 밤,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다급하게 실려 왔다.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다시 한번 시행된 MRI에서 아이의 뇌에는 저산소성 손상이 무척 커 보였다.

어느 정도 경련이 조절되던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할 만큼 경련을 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생겨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봐 왔던 교수님은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였다. 조사를 통해, 실제로 부모가 아이를 해하기 위해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질식을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져 부모는 구속되었고, 아이를 포함한 세 남매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다.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.

할머니의 마른 입술에서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. “지금도 옆집에 두 명을 맡기고 왔어. 옆집에서 더는 못 맡아주겠다네. 부모를 다 갖다가 감옥에 처넣으면 애들은 어찌라고. 이 늙은이는 이제 기력이 없고 애는 정상이 아닌데, 나 혼자 뭘 어찌. 도저히 애 셋을 볼 수가 없는데, 어찌라고.”

1. 제시문 내용을 요약하고, 할머니의 심정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보시오.
2. 위의 상황과 같이 의사를 공격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.
3.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. 담당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의견을 말해 보시오.